

나눔 중심, 단위별 결사

조계종, 자성과 쇄신 제3차 결사 입재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들이 자성과 쇄신 2차 결사를 회향하고 3차 결사를 입재했다. 3차 결사는 나눔 결사를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과 부서·기관 등 단위별 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성과 쇄신 결사, 중앙종무기관 3차 100일 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의지 결집과 결사의 범종단적 확산 도모, 중앙종무기관 결사정진의 사회화(실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를 위해 2차 결사 때까지 진행돼 온(금강경) 독송 대신 매일 오전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작성된 발원문을 낭독한다.



조계종은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결사추진본부를 마련했다. 본부장에는 도법 스님, 사무총장에는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나눔 결사 실천을 위해서는 >7월 14일 독거노인 위문을 위한 중계동 백사마을 방문 >8월 아름다운동행 비움나눔 108배 행사 동참 >9월 수해복구 및 농촌봉사활동 등 대민지원 활동 등을 계획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총무원장 스님 등 교역직 스님을 중심으로 축구팀을 꾸려 연습상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기대는 하지만...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출범 각 계 반응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7월 4일 마련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추진본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은 좀 두고 볼 것이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사진)은 자체적으로 결사를 추진하던 총무원이 별도의 조직을 출범시킨 만큼 일단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조직을 세운 것은 총무원도 내부 추진 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 집행위원장은 지난 6개월 간 성과를 내지 못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종단의 자성과 쇄신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단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추진본부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인적 구성 및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거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스님들이 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사의 내용과 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흥기폭제 기대”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

“방계 조직이 아닌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의지를 갖고 종단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사진)은 별도 조직으로 발족한 추진본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별도 조직보다는 종단 차원의 집중적인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추진본부까지 발족시킨 종단이 무엇을 어떻게 자성하고 쇄신할 것인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추진본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종현종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며 총무원장 스님의 계파 탈피 및 중립화 의지 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진본부장인 도법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진본부에 전념해야 자성과 쇄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법응 스님은 “추진본부 각 조직의 현황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인적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고 성과 증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추진본부가 담당해 불교 중흥을 위한 활동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권한 줘야”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

“5대 결사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기대할만 하지만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사진)도 추진본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추진본부에 대한 종단 정책모임들의 결의·위임 등 실질적인 권한이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도 신뢰와 5대결사 추진을 위해서는 결사추진본부 발족과 함께 지속적인 5대결사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총무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사추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6개월간 전국적으로 5대결사를 일으킨 종단이 자성하고 쇄신할 것인지 기구를 만들어 새로 고민하지는 않는 책임회피란 시선과 함께 종도들의 자조·실망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화쟁위·민추분·종평위 등 종단 기구를 통합한 것에 대해 분야별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기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김재일 대표 뜻따라 불교수목원 설립

조계종, 불교수목원 설립 추진에 박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2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故 김재일 대표와의 약속에 따라 49제일인 이튿날 이날 방문에는 지지사 주지 성용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 이병인·윤여창·이영경·신준환·오충현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불교수목원 건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승 스님은 “김 대표의 49제에 함께 던 이곳에 김 대표의 49제일에 오게 되었다”며 “김 대표의 발원이었던 불교수목원 건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에게 수목원 건립 요건과 종자 분양절차를 묻는 등 불교수목원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일찍이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은 수목원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4000여 평의 임야가 있는 지지사가 제일먼저 불교

수목원 건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며 지지사 주지 성용 스님에게 수목원 건립을 제안했다.

또, 자승 스님은 추진 위원회를 금년 안에 발족할 것을 지시하고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자문을 국립수목원장이 맡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은 “불교는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

연립을 가지고 있어 좋은 수목원을 만드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교수목원에는 염주를 만드는 나무를 모아 심을 수도 있고, 인도 식물원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불교수목원 건립에 자문을 약속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사찰생태연구소에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연구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천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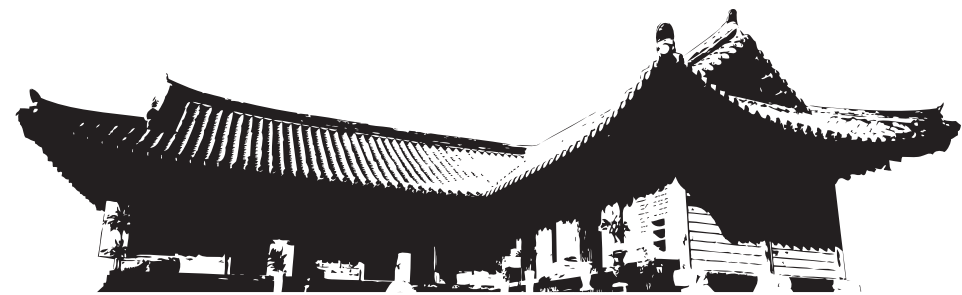


故 김재일 소장의 49제인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유가족이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더반 OK 평창 YES!” 7월 7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도 21일 기도 회향법회를 연 조계사 사부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조계사는 6월 16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매일 정오 23분 티종을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마음 모아왔다. 조계종·천태종·태고종·진각종 등 불교계와 지역종교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종교평화회의는 잇따라 축하 논평을 발표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을 축하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총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2011년도 신입생 모집

모든 종교에는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미묘한 법과 장엄한 이 의식 절차를 우리 총무원 교육원에서 여법하게 부처님전에 공양올리는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교인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❶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 ◇천도재(49재)실전주교육 - 시련,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 지장청, 시왕도청, 전신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화의재 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식), 예수재의식
- ◇강사진 - 김영담 스님(영봉정사) / 김경보 스님(경보사) / 이일각 스님(일각사선원) / 한철암 스님(무상정사) / 이성암 스님(미타사)

❷ 입학안내

- 입 학 식 : 2011년 9월 5일 오후 1시
- 입학자격 : 종단 관계없이 비구, 비구니, 교인
- 강의장소 : 경남남부교구총무원 설법전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교구총무원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 수 강 료 : 교육비 5만원(교재비 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접수기간 : 상시 모집

❸ 문 의 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63번지(광천사 승모회관 4층) · 총무원 ☎ 055)381-1199,383-3721 영담스님 011-852-8595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교구총무원 총무원장 강무호